



##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2013 광화문광장서 잡지의 날 기념 4천여종 잡지 전시 기념식서 이창의 명예회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근대잡지의 효시인 육당 최남선의 '소년' 지 창간일인 11월 1일을 기념해 정한 잡지의 날을 맞아 한국잡지협회(회장 남궁영훈)는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으로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2013'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또한 11월 4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8회 잡지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2013은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한 메인 무대와 가설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페스티벌은 고잡지관, 현대관, 국제관, 미래관으로 구성해 잡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고잡지관'에서는 육당 최남선이 발행한 최초의 근대종합잡지 '소년'을 비롯해 국내 첫 잡지로 알려진 1896년 독립협회 기관지 '대조선독립협회회보' 등을 전시했다. '현대관'에서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하는데 기여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잡지 4000여종을 전시했다. '국제관'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다양한 잡지들을 볼 수 있었고, '미래관'은 디지털 시대에 환골탈태 중인 잡지의 변신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다. '함께하는 매거진'을 통해서는 가이드포스트(가이드포스트), 건축세계(건축세계, 인터리어월드), 교원(과학소년,

위즈키즈) 등 46개 업체가 별도 부스를 마련해 발행하고 있는 잡지 70여종을 전시했으며, 과월호 잡지 등을 관람객에게 무료 배포했다.

남궁영훈 한국잡지협회 회장은 "함께하는 매거진을 통해 한국잡지박물관이 소장한 4000여종을 꼬집어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축제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잡지사들이 광화문 광장에 부스를 열고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일반 독자들이 잡지를 만드는 발행인과 기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는 '독자와 함께만 들어가는 잡지'라는 취지에 따라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흥겨운 풍물놀이를 비롯해 범패, 선무 등 불교예술과 전통굿판, 대형붓글씨 쓰기, 다도시연회, 대학생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 등이 열리기도 했다.

### 이창의 명예회장 은관문화훈장 수훈

축제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4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48회 잡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운 민주당 국회의원,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재호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윤희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광재 한국잡지학회 초대회장, 이종균·김수달·김영진·허광수·노영현·이종균 전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및 시상식은 박성준 JTBC 아나운서 팀장, 박혜정 한국 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의 사회로, 남궁영훈 한국잡지협회 회장의 기념사,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신학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재운·류지영 국회의원의 축사, 김홍신 심사위원장의 전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 심사평, 박윤환 심사위원장의 한국잡지언론상 심사경과보고, 정부포상, 수기공모시상, 올해의 인물상·한국잡지언론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궁영훈 회장은 기념사에서 "잡지언론이 신문 방송과 함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중요한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과 방송매체들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이번 코리

아 매거진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잡지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잡지가 디지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매체로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잡지가 단순한 읽고 보는 잡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은관문화훈장, 문화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주)매거진하우스의 이창의 대표이사는 종합여성지 '여성조선', 등산전문지 '산' 등을 발행했고, 잡지협회회장 재직 시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발표해 잡지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화포장'을 수훈한 한국종합판매 원종남 대표는 1989년 일간 '정보통신저널'을 창간, 발행해국내 방송통신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최광중 (주)국제관광개발연구원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조인원 (주)제이콘텐츠리엠앤비 상무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김기제 팔복원 대표 등 10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



1. 잡지의 날 기념식 전경 2. 훈포장 수상자 3. 인사말을 하는 남궁영훈 회장 4. 축사를 하는 김종 문화부 차관 5. 김홍신 잡지 읽기 수기 공모 심사위원장 6-7. 코리아 매거진 페스티벌 행사장 전경